

“최초의 평신도 선교사”

사도행전 11:19-30

아더 디마스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는 미국 기독교실업인 가운데 다섯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신앙과 경영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전에는 사업을 하다가 크게 실패해서 빚더미에 올라 앉았습니다. 그는 금식하고 기도하며 “주여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네 삶의 태도가 잘못되었다. 왜냐하면 너는 사업의 주인이 너 자신이 아니냐? 네가 정말 나를 주인으로 인정한다면, 내가 책임질 것을 믿어야 할 것 아니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뒤로 그는 크게 깨닫고 그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며 사업을 계획하고 기도하며 추진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다면 가리지 않고 뛰어들어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런 그를 향해 사람들은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이 돌았구나.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저렇게 돌아다니니 곧 망하겠구나” 그런데, 그 뒤로 사업이 점점 성장하면서 번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사업을 하며 세운 여섯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주일성수하고, 둘째, 하루의 첫 시간에 기도하고 시작하고, 셋째, 온전한 심일조를 드리고, 넷째,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물질을 주님께 드리고, 다섯째,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여섯째, 사업의 모든 문제와 필요를 주님이 해결하시도록 주님께 맡기는 것. 그는 큰 돈을 벌었고, 후에 미국 CCC 회관을 짓는데 거액을 헌금할 뿐 아니라 자신의 유산을 정리한 5,600 억원을 선교재단에 헌금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내가 망한 것이 도리어 유익이 되었다. 내가 망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고 교만과 탐욕에 빠져 있었을텐데, 하나님께서 나를 망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게 되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믿음 안에서 만나는 고난은 세상 사람들의 고난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얻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기자는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시 119:71)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검증하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고난의 대명사는 역시 ‘욥’ 입니다. 욥은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 그의 참 믿음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평안한 수십 년의 신앙생활보다, 고난의 1-2 년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기도 합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행 11:19)

스데반 집사의 고난과 순교사건은 복음이 전해지는데 전혀 위협을 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사건을 통해 사도들을 제외하고 모두가 사방으로 흩어지며 이방인과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이 확장되기까지 합니다.

누군가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삶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 사랑을 보여 주신 이유도, 바로 사람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선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보람있고 가치 있는 일은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생명보다 값진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 지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행 11:22-23)

예루살렘 교회는 이렇게 위대하고 가치 있는 사역 즉, 생명을 살리는 사역을 위해 평신도 선교사인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파송합니다. 최초의 평신도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파송한 평신도 선교사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을까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행 11:24)

1. 착한 사람

첫째로 그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인격과 성품이 잘 갖춰진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신약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가장 탁월한 인격의 소유자 중 한 사람 입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인 리더십이 강한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바나바는 인격적인 리더십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성령이 임했을 때 자기 발을 팔아서 사도의 발 앞에 둔 사람이었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발이 있으며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행 4:36-37)

바나바는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약자를 배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라는 이름은 '위로자', '권위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복음도 줄 뿐 아니라, 그의 인격적인 삶의 태도를 통해 그 복음이 훨씬 효과적으로 전달되도록 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2.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둘째로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영적인 리더십이 있었습니다. 리더들 가운데, 이성적으로는 잘 생각해서 판단하지만, 영적으로는 충만하지 못한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이성적이면서 영적으로도 충만했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3.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

세번째로, 바나바는 다른 사람을 잘 세워줬던 사람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일 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행 11:25-26)

그는 안디옥에 파송 받아서 보니 사울이 생각이 났습니다. 사울의 능력을 키워주어 함께 동역하기를 원했습니다. 바나바는 사람을 보는 안목이 있었습니다. 특히 믿음의 사람을 알아보는 좋은 안목이 있었습니다. 아직 아무도 사울을 인정하지 않던 때에 사울이라는 사람의 가치를 알아본 것입니다. 결국은 바나바가 사울을 나중에 섬기게 됩니다. 자기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섬기는 것은 큰 어려움이 아니지만, 무명으로 자기 보다 신분도 낮은 어린 사람을 섬기는 것. 이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바나바는 이렇게 다른 사람을 잘 세워주었던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기도하는 가운데, 그 자리에 가장 어울리는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을 뿐 아니라, 그 사람을 리더의 자리로 세워주며 오히려 자신은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바울과 바나바의 멋진 동역을 통해 결국 '안디옥교회'가 탄생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얻게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

저는 우리 성광교회 성도님들도 이와 같은 별명이 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의 행실을 봤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도저히 분간이 가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지도, 기도생활에 열심을 내지도 않습니다.

저는 우리 성광교회에는 이런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누가 보아도 '그리스도인', 누가 보아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바로 알아볼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가지 더 주목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초대교회 최초의 구제 장면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행 11:29-30)

안디옥교회가 처음한 것은 '선교'가 아니라, '구제'였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들이 다 큰 이방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역을 감당하기 전,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구제 사역을 먼저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지탄의 대상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들을 위한 일에는 많은 금액을 투자하고 즐겁게 그 일을 하지만, 소외된 이웃과 사회를 위해서는 인색한 것이 오늘날 많은 교회의 모습이 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29 절에 보면 “그 힘대로” 드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디옥교회는 여러가지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힘대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보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제 막 탄생한 개척교회입니다. 헌금을 한 다 해도 그리 큰 금액이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들이 이렇게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섬김의 자세가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힘 닿는대로, 형편대로 합니다. 금액이 적고 큰 것은 전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으로 인해 우리안에 시험이나 낙심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 온전한 헌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최초의 평신도 선교사라고 할 수 있는 바나바를 통해 몇가지 교훈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일꾼은, 먼저 좋은 인격과 성품을 지닌 착한 사람이며, 둘째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 마지막으로 남을 세워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광교회의 모든 성도님들도 바나바와 같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나눔의 시간

1. 이번 주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과 내가 적용한 것은 무엇입니까?
2. 바나바는 최초의 평신도 선교사였습니다. 그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는지 함께 나누어 보고, 그 가운데 자신에게 가장 도전이 되는 영역은 어떤 부분인지도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3. 내 인생속에서 그 사람의 행실이나 태도만을 보고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경험 있다면 함께 나누어 봅시다. 더불어, 나는 다른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우는 사람인지도 함께 고민해 봅시다.
4. 초대교회가 선교 보다 구제 사역을 먼저 한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생각해 봅시다. 이것을 나와 우리 목장, 더 나아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초점을 맞추어 함께 나누어 봅시다.